

# ‘연봉 1억원’ KB국민은행원들, 파업 나선 까닭은?

### 쟁점사항들, 대부분 임금 관련 부분들 여론, 노조 파업에 공감 못하는 분위기 뿌리깊은 노사갈등도 원인이라는 지적

KB국민은행의 총파업을 향한 여론이 싸늘하기만 한 가운데 행원들이 대거 파업에 뛰어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고액 연봉자들이 은행 창구를 떠나 고객 불만을 담보로 무쟁할 만큼 상황이 절박했는지 의문을 품는 시선이 적잖다. 노동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이자 최후의 교섭 수단이 파업이긴 하지만 명분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노조는 8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진행하고 오후 2시를 기해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2000년 옛 주택은행과의 합병 반대 이후 19년 만에 단행된 파업이다. 노조 측은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전국 직원 9600명 안팎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대로라면 노조원 1만4000여명 중 약 68%가 파업에 나선 것이다. 전체 직원 1만7000여명의 절반 이상인 56%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보다 적은 노조원의

41% 수준인 5500여명만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추산치가 각기 다르지만 상당수의 직원이 파업에 동참한 셈이다.

◇노사 임단협 쟁점 줄다리기에 팽팽...임단협 전에

새벽까지 진행된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총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일단 임단협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페이밴드 제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기를 벌여왔다.

사측은 당초 ROE(자기자본이익률)의 1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다가 한 발 물러나 시간의 수당까지 합해 300% 수준을 제시하면서 막판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대신 직급별로 이원화된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을 일차적으로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논의의 등에 나서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조건부 성과급은 수용할

수 없고, 임금피크제 시점 일원화 요구도 받을 수 없다며 사측의 제시간을 최종 거절했다. 노조는 지급과 무관하게 임금피크제를 일률적으로 1년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이밴드 제도에 대해서도 2014년 11월 이후 임행한 지역차 행원들에게 강제 도입된 만큼 '확대 불가' 입장이다.

드러난 쟁점 대부분이 임금과 관련된 것들이라 노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다. 고객을 볼모로 '성과급 잔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구조조정 문제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섰던 과거 파업과 비교해도 명분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노조는 성과급 프레임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이 조직 내 뿌리 내린 차별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조직 내 뿌리 내린 차별 관행을 없애고 청년 여성 은행원에 대한 잘못된 제도를 고치자는 게 모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극심한 노사갈등 문제... '성과주의 이슈' 얽혀

이번 파업의 기저에는 단순히 임단협 문제를 떠나 뿌리깊은 노사갈등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규모,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KB국민은행의 파업은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이다.

도 많다. KB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문제 노동이사제 도입, 국민은행 채용비리 의혹 수사 등의 과정에서 국민은행 노사는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때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이 아닐까"고 말했다.

특히 성과주의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골은 깊은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에도 갈등이 극으로 치달은 바 있다. 이

번 협상에서 페이밴드 제도 확대를 놓고 노사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성과주의 이슈와 맞물려 있어서다. 노조 측은 페이밴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무리한 경쟁과 성과주의를 부추겨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업 카드를 꺼내든 노조의 결정으로 노사 협상은 상당기간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 측은 이날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24시간 매일 교섭할 의사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으나 아직까지 사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노조는 추가 파업도 예고했다. 사측과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달 30일~다음달 1일까지 2차 파업에 나서고 다음달 26일~28일, 3월21일~22일, 3월27일~29일 등 5차 파업까지 돌입한다. 노사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 “모바일 뱅킹 시대인데”...국민은행 파업 파급력, 19년전과 다른 이유



어제 하루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페이밴드(호봉상한제)·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KB국민은행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중구구의 한 KB국민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19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했음에도 파급력이 생각보다 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거 파업 때에는 '금융 대란'으로까지 비호되는 등 고객 피해가 극대화됐던 반면 이번에는 약간의 불편을 제외하고는 큰 혼란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 거래 상당부분이 비대면으로 대체된터라 과거와 같은 파업 방식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12월 22일 총파업 당시에는 은행 창구가 닫히자 외환 대출, 신용카드, 공과금납부 등 대부분 업무가 불가능해 일대 대란이 일어났다. 진남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원장, 이기호 경제 수석 등 경제 수

장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원과 만나지 않아도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B국민은행의

비대면 거래 건수는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거의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이번 파업 당시에도 일부 대출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체 조합원 약 1만 4000명 중 노조 추산 68%(9600명), 회사 추산 39%(5600명)가 참석했음에도 총파업 대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KB국민은행의 현상만은 아니다. 은행권의 비대면 거래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조희를 기준으로 은행권 창구 대면거래는 전체 거래의 8.4%에 불과하다.

반면 인터넷뱅킹 거래는 86%로 10배 넘는 수준이다.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 등으로 업무를 보는 이용자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점 점포 자체도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평균 지점 수는 9월 말 기준 2016년 377곳, 2017년 301곳, 2018년 292곳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각 은행들은 디지털 원년' 등을 선포하며 비대면·디지털화에 박차 가하는 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은행 창구에 남아있는 은행원의 모습을 보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업으로 국민은행 노조의 협상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결집력과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지만 생각만큼 큰 문제가 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이어질 노사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조는 이달말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뉴스스

전체 조합원 중 40~70% 참석했지만 큰 문제 없어  
이유는 비대면 거래 확대...은행원 없어도 업무가능  
되려 이번 파업으로 노조 협상력 약화됐다는 분석도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